



해성 스님은 ... 1957년 경상북도 영일 출생. 1978년 돈암동 보현사 명식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 선학과, 삼선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다. <자비의 수화교실> <불교용어집> <아! 쉽다 운전면허> <점자 불교 법요집> 등을 펴냈으며, 1993년 청각장애인의 배움터인 사회복지법인 연화복지원 개원해 장애인 재활사업에 전력하고 있다. 이 밖에 제11회 불이상(1997), 포교대상 원력상(2000),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수상(2003), 제13회 올해의 불티어상(2012), 대한민국 압화대전 우수상(2013) 등을 수상했다.

장애 장애인들이 고용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했다. 2009년 10월에는 국내 230개 우수 중소기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화집·점자법요집으로 신심 고취시켜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이 활력을 찾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지만 또 한가지 고민이 있었다. 사실 수화로 법문하는 것은 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수화교재에는 불교 관련 용어가 3-5개정도만 표기돼 있었고, 그마저도 타종교인이 중심이 돼 만들다 보니 불교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불교 수화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설명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해성 스님은 불자청각장애인과 함께 불교수화연구 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애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교단어를 취합하고 기존에 없던 불교단어 100여 개를 만들어 1999년 <자비의 수화교실> <불교수화 용어집>을 발간했다.

“용어를 정리해서 발간하는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책을 만드는 데 재정적인 부담이 컸죠. 그런데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들은 보덕학회 관계자 분이 도움을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움 끝에 열게 된 <자비의 수화교실> 출판회에는 동국대 손짓사랑회, 삼선승가대 학인 스님, 광림사 청각장애인 불자회, 삼소수화회 등이 참여해 수화찬불가와 수화노래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성 스님은 2008년 국립국어원 표준수화제정추진위원회에서 불교수화연구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동안 만든 100여개의 불교수화단어를 검토·확대했고, 국립국어원에서는 불교용어 1127개를 수록한 <불교 표준 수화집>을 발간해 수화통역사들이 불교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통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3년 전 시각장애인 법회를 열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스님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음성으로 경전을 읽어주지 않는 이상 전부 외워서 독경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해성 스님은 매주 일요일 청각장애인 법회를 열고 둘째 주 일요일에는 청각·시각장애인 합동법회를 연다. 또한 매년 2-3회 장애·비장애인을 위한 합동 성지순례를 떠난다.

집에서 따로 독송을 하고 싶다는 신심이 깊은 불자들 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법요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동안 몇몇 장애인 불자모임에서 점자로 된 불서와 법요집을 간행하기는 했지만,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은 또 한번 불사를 시작했다. 일반 도서에 비해 제작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들긴 했지만, 주변의 관심있는 불자들과 보덕학회의 재정적 후원으로 <점자 불교 법요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스님은 점자 법요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요집과 불교서적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음성녹음을 통한 불서보급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노양시설 세우고파

20여 년간 장애인들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스님에게 마지막 꿈이 있다. 장애인 전용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함께 한 청각장애인들을 받아 줄 마땅한 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 문화회관 건립도 발원하고 있다.

“이분들은 아플 때 제일 괴롭다고 합니다. 병원에 수화통역사가 상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가 아픈지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이들이 마음 편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양시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2005년부터 수화 호스피스 과정을 개설하고, 수화 호스피스 봉사단인 파드마 봉사단을 발족해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스님의 씩씩한 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비장애인들의 참여를 늘게 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욱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성 스님은 강조했다.

“우리는 예비장애인 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로 장애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장애인들도 모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부처님 제자인데 그들 스스로가 죄인으로 생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스님과 불자들 모두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너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법일기

백중기도의 참 의미

긴 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이어진다. 올 해는 유난히 덥다. 입추가 지난 절기임에도 열대야 현상은 연일 계속되어 말 그대로 찜통더위다. 한 여름의 더위야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 이번 여름은 유별나게 덥다.

기도하러 법당에 서면 절도하기 전에 땀부터 흐른다. 하얀거를 맞아 선방에서 정진하는 대중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시원한 날씨에도 정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날씨까지 이렇게 더위 더욱 그럴게다.

한 여름 절집에서는 백중기도와 함께 하얀거 수행을 보낸다. 음력 칠월 보름까지 49일간 '우란분절(盂蘭盆節)' 기도정진을 한다. 백중(百中)은 절기로 볼 때 가장 중장에 위치하다는 것이지만 백중(百種)이라해 과일과 채소가 가장 풍성하여 백가지 씨앗을 갖추었다는 의미도 있다. 이날은 또 지옥문이 열린다고 해서 갖가지 음식을 두루 갖추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선망 조상님들을 천도해 드리는 날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백중날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이어왔다고 한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규모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지금까지도 '공승재'라고 하여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조상님들의 천도를 발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오고 있다.

백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불보살님과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해 드리는 것이다. 그 유래는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에서 보면 '우란분'이란 '거꾸로 매달렸다'는 뜻인데 돌아가신

불교의孝와 승보공양



그림·박구원

백중, 부모 공덕기리며 효와 보은 실천하는 절기 승보공양으로 공덕 완성

조상님들이 것처럼 고통 받고 있다는 표현이다.

부처님 당시, 목건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혜를 갚고자 천안통으로 죽은 어머니가 가신 곳을 살펴보았는데 아귀의 세상에서 굶주리는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 목건련존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음을 알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이에 부처님은 “7월 15일에 시방의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그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 현재의 부모와 7대의 조상과 6종의 친족이 3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고 설화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목건련이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 해탈했다.

이처럼 백중기도 기간은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 효와 보은을 실천하는 기간이다. 아울러 자기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기회가 된다.

<부모은중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행한 10가지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이들 10가지 은혜는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보은이고 은덕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중은 1년 중 한번이라도 그 은덕을 살피고 마음에 새기는 선현의 지혜가 담긴 절기이다. <부모은중경>이 아니라도 <장야함경> <범망경>에도 효를 강조하고 있다. 인류의 큰 스승인 부처님께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길은 곧 효이고 효가 곧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백중은 조상천도를 통해 선망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위패를 모시고 공양을 배운다. 이는 선망부모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지혜를 얻게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공덕의 회향은 '공승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하며 자신의 공덕의 크기를 키워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백중의 참 의미일 것이다.



가섭 스님(조계종 교육국장, 경기 오토 불국사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 로잔전등

팔각기공주전등

주름 등

왕정기전등

칼라로카시전등

공 단 등

용기 등

그림 왕정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계는 법당 연등 설치도 바쁜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용주사 LED 인등

보림형 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왕2리 261-6 / 전 화 : 031) 792-6288, 794-4055 / 팩 스: 031) 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